

1. 다음 중 고조선 단군 신화가 수록된 '문헌-저자-저술시기'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헌	저자	저술시기
㉠ 삼국유사	일연	고려 충렬왕
㉡ 제왕운기	이승휴	고려 성종
㉢ 세종실록지리지	춘추관	조선 단종
㉣ 응제시주	권람	조선 세조
㉤ 동국여지승람	노사신	조선 성종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③

* 단군신화가 수록된 문헌들에 대하여

단군의 건국에 관한 우리측 기록은 고려 충렬왕 대의 삼국유사(일연, 1281)와 제왕운기(이승휴, 1287), 조선 단종 대의 세종실록지리지(춘추관, 1454), 세조 대의 응제시주(권람, 1462), 성종 대의 동국통감(서거정, 1485)과 동국여지승람(노사신, 1481)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다음 글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형벌이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사람들은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 성책(城柵)의 축조는 모두 둥근 형태로 하는데, 마치 감옥과 같았다. ……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에는 모두 얼음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 장사를 후하게 지냈으며, 곽(槨)은 사용하였으나 관(棺)은 쓰지 않았다. -『삼국지』-

-
- ① 국왕의 장례에는 옥갑(玉匣)을 사용하였다.
 - ②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의 관 속에 넣어 매장하였다.
 - ③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 ④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정답: ②

* 초기국가 부여 [2017년 국가직 7급 8번과 유사]

부여에는 왕 아래에 여섯 가족의 이름을 딴 마가(馬加), 우가(牛加), 저가(豬加), 구가(狗加), 대사(大使), 대사자(大使者), 사자(使者) 등이 있었다. 이들 중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가들은 왕을 추대하기도 하였고, 수해나 한해를 입어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러나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매우 강해서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왕이 죽으면 옥갑(玉匣)을 사용했고 누금(鏤金)한 옥으로 만든 옷을 입혔다으며, 많은 사람을 꺼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부여의 풍속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우제점법).

장례 풍습은 계세 사상이 강하여 송장(送葬)을 멈추어 두는 정상(停喪)기간이 5개월에 미칠 정도로 상주는 장사를 속히 지내려 하지 않고 남의 강권에 의해 행하는 것을 예절로 알았다. 그리고 여름에는 얼음을 써서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였고 또한 많은 부장을 하였다.

부여의 법으로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고,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는 것 등이 전해지고 있다.

- ② 옥저는 가족이 죽으면 가매장 후 뼈를 추려 하나의 목곽에 안치하였다.

3. 다음 중 고구려에서 발생한 사건의 순서에 따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낙랑군을 축출하고 대동강 유역을 차지하는데 성공하였다.
 - ㉡ 왕위가 처음으로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다.
 - ㉢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 선까지 판도를 넓혔다.
 - ㉣ 요동 지역으로 진출을 도모하고, 동옥저를 복속하였다.
-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 고구려 발전의 연대기

태조왕(53~146) 때에 고구려는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물자가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한 (동)옥저를 정복하였고(56), 요동으로도 진출을 꾀하여 선비족과 함께 요동 태수 채풍을 죽이기도 하였다(121).

고구려는 2세기 후반 고국천왕(179~197) 때에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 온 5부가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되었고, 왕위계승도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었으며, 국상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194)을 실시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동천왕(227~248) 때에는 요동을 놓고 위나라와 갈등하며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침입으로 인한 수도가 함락되는 위기도 있었다(244~245).

고구려는 4세기에 이르러 중원의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틈타 활발하게 대외 팽창을 꾀하였다. 미천왕(300~331) 때에 마지막 한(漢) 군현인 낙랑군(313), 대방군(314)을 완전히 몰아낸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4세기 중.후반 고국원왕(331~371) 때에 서북쪽의 전연 모용황의 수도 침략(342)과 남쪽의 백제 근초고왕의 침략을 받아 평양성에서 국왕이 전사(371)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림왕(371~384)은 중국 북조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372)하여 인재를 길렀으며, 율령을 반포(373)하여 국가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로써 고구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소수림왕 때의 내정개혁을 바탕으로 광개토 대왕(391~412)은 백제를 굴복시켜 한강 이북의 지역을 점령하고, 서북쪽의 거란과 선비족의 후연을 격파하고 동부여와 동쪽의 말갈을 굴복시켜 요동 지방을 포함한 만주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였다. 또한 백제가 왜를 끌어들이어 신라에 침입해오자, 신라의 군사원조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 5만을 보내어 왜를 격퇴하였다(400).

장수왕(413~491)은 414년 광개토대왕릉비를 건립하여 부왕의 업적을 기리고 평양천도(427)와 남진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개로왕(부여경)의 백제 수도 한성을 급습하여 함락시키고(475),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4. 다음 민중 봉기에 대한 내용을 시기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백정 출신이 몰락한 사림, 아전, 평민 등을 규합하여 구월산을 본거지로 의협 활동을 전개하였다.
 - ㉡ 군현에 사자를 보내어 조세를 독촉하자 원종과 애노가 상주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 ㉢ 서북지방의 대상인, 향임층, 무사, 농민 등이 연합하여 지방차별 타파를 외치며 봉기하였다.
 - ㉣ 경주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 부흥을 외친 농민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 ㉤ 진주 민란을 시작으로 북쪽의 함흥으로부터 남쪽의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 역대 민중봉기의 연대기 [2012년 지방직 7급 20번과 유사]

㉡ 9세기 말 신라 진성여왕 때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모순이 증폭되었다. 중앙 정부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졌으며, 지방의 조세 납부 거부로 국가 재정도 바닥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한층 더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자, 마침내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889년)을 시작으로 농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고려 무신정권 이의민 집권기에는 신라 부흥운동을 표방하며 경주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김사미(운문: 청도), 효심(초전: 울산)의 농민 봉기가 있었다(1193).

㉠ 조선 중기(16세기) 들어 수취 체제의 문란으로 농민 생활이 악화되자 각 지방에서 유민이 증가하였다. 유민 중 일부는 도적이 되어 양반과 중앙 정부로 바치는 물품을 빼앗기도 하였으며, 이들이 도성에까지 출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명종 때 황해도(구월산)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한 백정 출신의 임꺽정(1562년 처형)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 세도정치 하 최초로 일어난 농민 봉기인 흥경래의 난(1811년)은 지방차별 타파를 외치며 몰락한 양반인 흥경래의 지휘하에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일으킨 봉기였다. 이들은 처음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선천, 정주 등을 별다른 저항없이 점거하였다.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 세도정치(1800~1863) 하 농민봉기는 철종 때에 가장 심하여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함흥, 남으로는 제주도까지 확대 되었다(1862년 임술농민봉기).

5. 다음 중 삼국시대의 주요 대외 교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구려는 중국의 남북조 및 북방 유목 민족과 교역하였는데 중국과는 주로 금·은·모피 등을, 북방 유목민과는 철을 무역하였다.
- ② 삼국은 주로 귀족 생활과 관련 있는 비단과 도자기, 장식품, 서적, 약재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 ③ 백제는 중국의 남조 및 왜와 교역하였는데, 중국-가야-왜를 연결하는 서남해 교역로를 장악하여 활발한 해상 활동을 벌였다. 중국에는 주로 인삼과 직물류 등을 수출하였으며, 왜에는 곡물과 직물류 등을 수출하였다.
- ④ 신라는 처음에는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 중국 왕조들과 무역하다가, 법흥왕부터 중국과 직접 교역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왜에 곡물과 비단을 수출하였다.

정답: ④

* 삼국시대의 대외교역

삼국의 국제 무역은 4세기 이후에 크게 발달하였다.

고구려는 남북조 및 유목민인 북방 민족과 무역을 하였다(요동 지역에 철광이 많아 북방 유목 민족과 철을 많이 교역).

백제는 남중국 및 왜와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근초고왕 대에 가야 정벌과 중국의 요서·산둥과 왜의 규슈 진출을 통해 서남해 교역로를 완전 장악하는 해상활동을 하였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획득하기 이전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하여 중국과 무역을 하였으나,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진흥왕대 이후에는 당항성을 통하여 직접 교역하였다.

삼국의 수출품으로는 마직물, 금·은 세공품과 주옥, 인삼, 모피류(고구려) 등이 있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으로는 주로 귀족 생활과 관련이 있는 비단, 장식품, 도자기, 서적, 약재 등이 있었다.

한편 백제와 신라는 일본과 활발한 교역을 하였다. 백제는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신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일본과 교역을 많이 하였다. 왜는 전통적으로 쌀이 부족해 곡물을 많이 수입하였고, 신라를 거쳐 중국의 비단이 건너갔다.

6. 다음은 삼국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본의 석상 신궁에 보관되어 있는 칠지도는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에게 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②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4·6 변려체로 구성되어 한문학의 발달을 알 수 있으며, 불당을 세운 내력을 기록하여 불교적 성격을 지니면서 도교의 은둔 사상도 함께 지니고 있다.
- ③ 원효는 서방 극락 정토에 가고자 하는 내세적인 아미타 정토 신앙을 널리 설파하여 불교를 대중화하였다.
- ④ 당나라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영주에 부석사를 창건하고 문무왕의 정치적 자문도 맡았던 인물은 의상이다.

정답: ②

* 삼국시대의 문화에 대하여

-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대에 백제에서 만들어 일본에 보낸 칠지도는 강철로 만들고 금으로 글씨를 상감해 새겨 넣은 우수한 제품이다. 이소노가미 신궁 소장.

- 백제 의자왕 때 활약했던 사택지적이 남긴 ‘사택지적비’는 늘어가는 것을 탄식하여, 불교에 귀의하고 원찰(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 세운 절)을 건립했다는 것을 세련된 4.6 변려체(글자는 구양순체)로 표현하였다. 도교 사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 원효(617~686)는 서방 극락정토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그리하여 “나무아미타불만 외쳐도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고 부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일반 대중에게 전파하였다(정토종).

- 의상(625~702): 당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귀국하여 중국과 다른 독특한 화엄 사상을 창설하였다(해동 화엄종). 즉,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그는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문무왕의 자문을 맡았고, 삼국통일 전쟁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81년에 큰 공사를 일으켜 도성을 새로이 정비하려 할 때 백성을 위해 이를 만류하였다.

②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통일신라기(8세기)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불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판 인쇄물이다.

7. 다음 자료의 출처로 가장 옳은 것은?

왕이 글을 내렸다. “우리나라 내수사와 각 관청이 노비를 소유하고 물려주는 것은 기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 임금이 백성을 볼 때는 하나같이 적자이다. ‘노’이니 ‘비’이니 구분하는 것이 어찌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는 뜻이겠는가? 왕실 노비 3만 6,974명과 (중앙)관청 노비 2만 9,093명을 양민이 되도록 허락한다. 승정원에 명을 내려 노비 문서를 모아 돈화문 밖에서 불태우도록 하라.”

- ① 영조실록 ② 세종실록 ③ 순조실록 ④ 정조실록

정답: ③

* 중앙 관서 공노비 해방(1801)

조선 후기 노비의 신분 상승 추세는 아버지가 노비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양민으로 삼는 법(노비종모법, 1731)이 실시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18세기 후반, 공노비의 노비안이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이름만 있을 뿐 신공을 받아 낼 수 없게 되자, 순조 때에 중앙 관서의 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1801).

그러나 같은 공노비이면서도 내시노비를 제외한 역노비와 지방의 영·진이나 각 고을의 관아 및 향교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는 공노비혁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각 고을의 관노비가 혁파에서 제외된 것은 이들이 중앙 각사나 내수사에 신분적으로만 예속되어 신공만을 납부하고 있던 내시노비와는 달리 입역으로 그들의 임무를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일 노비세습제 폐지(1886)와 갑오개혁(1894)을 통해 노비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8. 다음 ㉠과 ㉡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쳐들어가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의 왕 사유가 힘을 다해 싸워 막다가 빛나간 화살에 맞아 죽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 왕이 군사 3만을 이끌고 백제에 침입하여 백제 왕의 도움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천 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① 고구려 미천왕은 서안평을 점령하였으며,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② 고구려는 중국의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면서 배후를 안정시켰다.

③ 백제 침류왕은 동진의 마라난타가 유입한 불교를 수용하였다.

④ 신라 눌지왕은 나제동맹을 체결하여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①

* 고구려 발전의 연대기(371~475)

고구려는 4세기 미천왕(300~331) 때에 중원의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틈타 요동의 서안평을 공격해 차지하고(311), 마지막 한(漢) 군현인 낙랑군(313)·대방군(314)을 완전히 몰아내어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4세기 중.후반 고국원왕(331~371) 때에 서북쪽의 전연 모용황의 수도 침략(342)과 남쪽의 백제 근초고왕의 침략을 받아 평양성에서 국왕이 전사(371)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림왕(371~384)은 중국 북조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372)하여 인재를 길렀으며, 율령을 반포(373)하여 국가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로써 고구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소수림왕 때의 내정개혁을 바탕으로 광개토 대왕(391~412)은 백제를 굴복시켜 한강 이북의 지역을 점령하고, 서북쪽의 거란과 선비족의 후연을 격파하고 동부여와 동쪽의 말갈을 굴복시켜 요동 지방을 포함한 만주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였다. 또한 백제가 왜를 끌어들여 신라에 침입해오자, 신라의 군사원조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 5만을 보내어 왜를 격퇴하였다(400).

장수왕(413~491)은 414년 광개토대왕릉비를 건립하여 부왕의 업적을 기리고, 중국의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면서 배후를 안정시키고 평양천도(427)와 남진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개로왕(부여경)의 백제 수도 한성을 급습하여 함락시키고(475),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③ 백제 침류왕은 동진의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384).

④ 장수왕의 남진정책과 지나친 압박에 대항하여 백제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왕은 나제동맹을 체결하였다(433).

9. 다음 한반도 고대 문화에 대한 설명 중 신석기 문화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씨족별로 대략 20~30명씩 무리를 이루어 사냥과 고기잡이, 채집 등을 행하며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했다.
- ② 강이나 바닷가에 살면서 어패류도 채취하였으며 가락바퀴, 뼈바늘, 돌보습 등의 유물이 있다.
- ③ 부산 동삼동에서 사람의 눈과 입 모양의 구멍이 있는 조개껍데기 가면이 출토되었다.
- ④ 코뿔이 뼈에 새긴 사람 얼굴 조각이 충북 제천 점말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정답: ④

* 한반도의 선사문화

10. 다음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발해는 영역을 확대하여 옛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였지만, 그 영역에는 말갈족이 다수 거주하였다.
 - ㉡ 대조영이 698년 길림성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서 국호를 '진(震)'이라 하고 건국하였으며, 1대 고왕에 이르러 '발해'로 개칭하였다.
 - ㉢ 계획 도시인 상경의 유적과 유물은 발해의 문화를 잘 보여 준다.
 - ㉣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영광탑은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발해 석탑이다.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11. 다음 중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가 돌아와 흥덕왕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중국에서는 널리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으니, 청해진을 만들어 적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였다. …… 대왕은 그에게 군사 만 명을 거느리고 해상을 방비하게 하니, 그 후로는 해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잡혀가는 일이 없었다. -『삼국사기』-

-
- ① 당에서 무령군 소장이 되었으나 해적 근절을 위해 귀국하였다.
 - ② 일본과의 경제 활동을 위해 일본 하카타에 무역소를 설치하고 사절단인 회역사를 파견하였다.
 - ③ 무역 활동을 위해 파견한 무역선을 교관선이라 한다.
 - ④ 응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켜 장안(長安)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정답: ④

* 장보고(?~846)에 대하여

일찍이 당에 건너가 군인으로 출세하였다(무령군 소장). 당시 신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산둥성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짓고 이 곳을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아울러 신라인의 친목과 단결, 안녕을 꾀하는 정신적 위안처로 만들었다.

그러던 중 신라인이 당의 해적들에게 잡혀 와 노비로 팔리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귀국 후 흥덕왕을 뵈는 자리에서 "저에게 청해를 지키는 일을 맡기신다면, 해적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비로 끌고 가는 것을 막겠습니다"라고 요청하였고, 왕은 장보고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 군대를 조직하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828) 해적을 소탕하였다.

이로부터 장보고는 황해와 조선 해협의 해상권을 쥐고 당과 일본에 무역선(교관선, 하가타 거점)과 무역 사절(회역사, 견당 매물사)을 보내어 대규모의 국제 무역을 하였으며 신라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의 교통은 오로지 청해진의 선박에 의하여 행해졌다. 그리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고 당-신라-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무역을 주도하였다.

그 뒤 왕권 다툼에 간여하여 신무왕이 왕위에 오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문성왕 때에 자기 딸을 왕비로 삼으려다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한 진골 귀족들이 보낸 자객 염장에게 암살당하였다(846).

④ 신라 말 헌덕왕(809~826) 때에 아버지 김주원(무열왕계)이 김경신(원성왕계)에게 왕위쟁탈전에 패하자, 그 아들인 응주(공주) 도독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켜(822)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으로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2. 다음 고려시대 조선(造船) 기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고려시대 왜구를 막기 위해 판옥선을 건조하였다.
 - ㉡ 조세미를 지방 조창에서 개경으로 운송하는 조운 체계가 확립되면서 조운선이 등장하였다.
 - ㉢ 원의 강요에 의해 일본 원정에 필요한 전함 수백 척을 건조하였다.
 - ㉣ 송과 해상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길이가 96척(尺)이나 되는 대형 범선을 건조하였다.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 고려시대 조선(造船) 기술

고려 시대에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였다. 송과 해상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길이가 96척이나 되는 대형 범선이 제조되었다. 각 지방에서 징수한 조세미를 개경으로 운송하는 조운 체계가 확립되면서 1000척의 곡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조운선도 등장하였는데, 이는 주로 해안 지방의 조창에 배치되었다. 소형 조운선도 건조되어 200척 정도의 곡물 적재 가능하였고 주로 한강 유역의 조창에 배치되었다.

또한 원의 강요로 일본 원정에 필요한 전함 수백 척을 짧은 기간에 건조되었는데 조선 기술이 발달하였으므로 보여준다.

㉠ 선상에 화포를 적재할 수 있었던 판옥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군선으로 을묘왜변(1555) 때에 처음 개발되었는데, 선체가 커 많은 전투원과 화포 그리고 각종 군수품을 적재할 수 있고, 옥(屋)을 설치하여 주갑판에 있는 노요원과 사수의 안전을 보장하고 상갑판에서 화포의 구사를 용이하게 하여 전투효율을 높인 것이 바로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전승 요인이 되었다

13. 다음 중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는(은) 붓글씨를 잘 써서 신라의 문인 김생(金生), 고려 문종 때의 유신(柳伸), 고려 중기의 승려 탄연(坦然)과 함께 신품사현(神品四賢)이라 불렸다. 그는(은) 도방을 확대하여 내도방·외도방으로 편성하고, 새로이 마별초와 삼별초를 조직하여 무력 기반을 크게 확충하였다. 1231년부터 시작된 몽골군의 대대적인 침입에 대비하여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 ① 공민왕의 비호 아래에서 개혁 정책을 펼쳤다.
- ② 그의 처가 죽자 왕이 비단을 하사하고, 왕후의 예로 장사지내게 하였다.
- ③ 예종과 인종 때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 외척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④ 진강후라는 벼슬을 받아, 흥녕부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정답: ②

* 최우에 대하여

유신, 김생, 탄연 등과 더불어 신품사현(神品四賢)으로 일컬어지는 최우(?~1249)도 아버지 최충헌의 뒤를 이어 교정도감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행사하였다.

더 나아가 자기 집에 정방(1225)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마별초와 기존의 야별초(좌,우 별초로 분화)에 신의군을 더하여 삼별초를 조직하여 무력기반을 크게 확충하였다. 더 나아가 최우는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정국이 안정되면서 서방을 설치하여 문학적인 소양과 함께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들을 등용하여 숙위케 하고 고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는 몽골의 1차 침입(1231) 후 강화를 맺은 뒤, 1232년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킨 뒤 항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저항하였다. 이러한 천도한 공을 인정받아 진양후(晉陽侯)에 봉해져 부(府)를 세우고, 그의 처 정씨(鄭氏)가 죽자 장례 절차를 예종의 왕비인 순덕왕후 전례를 따르게 할 정도로 왕에 버금가는 권세를 휘둘렀다.

- ① 승려 출신의 신돈(?~1371)은 공민왕의 비호 아래 전민변정도감(1366)을 맡아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환원케 하는 개혁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 ③ 고려 전기 최대의 문벌귀족인 경원 이씨의 이자겸(?~1126)은 딸들을 예종과 인종의 왕비로 두어 외척으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 ④ 최충헌(1149~1219)은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희종 때에 진강후에 봉해져 진주 일대를 식읍으로 받았고(최우 이후로는 진양후로 개칭), 흥녕부라는 관부를 개설하였다.

14. 다음 중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부모의 유산은 대체로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사위나 외손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 ㉡ 결혼 후 신랑이 신부집에 머무르는 '서류부가혼'의 혼속이 있었다.
 - ㉢ 국왕을 비롯한 종실의 경우 동성 근친혼인 족내혼의 관행을 철저히 금지하였다.
 - ㉣ 아들이 없을 때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다.
 - ㉤ 행정과 사법이 명확하게 분리·독립되어 있었다.
 - ㉥ 형률제도는 주로 당나라의 것을 참고하여 시행하였으며, 때에 따라 고려의 실정에 맞는 율문도 만들었다.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고려의 사회상

고려 시대에는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에 혼인을 하였다. 고려 초에 왕실에서는 친족 간의 혼인이 성행하였다. 중기 이후 여러 번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충렬왕대에 다처제를 공식화하는 법제화가 시도되다가 중지되기도 하면서 국가적으로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묵인되는 형태로 계속되었다.

고려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끼치는 원리에 따라 거주와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졌다.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혼인 후 신랑이 신부집에 머무르는 '서류부가혼'의 배경 속에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솔서제),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고려의 법률은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지방관(행정관)의 사법권이 커서 중요 사건 이외에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중국의 당률을 참고하여 만든 법률을 시행하였으나, 시의(때)에 따라 고려의 독자적인 율문(律文)도 많이 만든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경우 관습법을 따랐다.

15. 다음 ㉠~㉣ 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조선 태종 때에는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의 필사본이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세계지도 중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세조 때에는 양성지 등이 동국지도를 완성하였다. 16세기에도 많은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조선방역지도가 현존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밀하고 과학적인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정상기는 ㉢동국지도를 만들었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의 표시가 정밀하고, 목판으로 인쇄되었다.

- ① ㉠은 원나라의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추가한 것이다.
- ② ㉡은 전국 8도의 군현과 병영, 수영이 표시되어 있다.
- ③ ㉢은 양계지역 및 압록강 이북 지역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여 북방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다.
- ④ ㉣은 거리를 알 수 있도록 10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어 있다.

정답: ③

* 조선의 지도 [2010년 7급 국가직 10번과 유사]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태종 때(1402)에 김사형, 이회 등을 시키어 만든 세계지도로 현존하는 세계지도 중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되었다. 이 지도는 아라비아 지도학의 영향을 받은 원나라 이택민의 세계지도인 <성교광피도>와 승려 청준의 <혼일강리도>를 중국에서 들여와 이 지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추가하여 완성한 것이다. 지도에는 중국이 지도의 중앙에 가장 크게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가 다음으로 크게 그려져 있다. 아프리카, 유럽은 매우 빈약하게 그려져 있고 신대륙인 아메리카나 대양주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조선방역지도(1558): 명종 때에 제작된 조선 8도 주현도(州縣圖)이다. 지도는 함경도 청색, 평안도 초록색, 황해도 백색, 강원도 연두색, 경기 및 충청도 황색, 전라도 백색, 경상도는 적색으로 그리고, 지명·수영(水營)·병영(兵營) 등을 타원형 안에 기입하였다.

동국지도(1740): 영조 때에 정상기(1678~1752)에 의해 제작된 최초로 100리 척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 제작에 공헌하였다.

대동여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의 표시가 정밀하고, 거리를 알 수 있도록 10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었으며, 목판으로 인쇄되었다.

③ **동국지도(1463):** 세조 때에 정척과 양성지가 만들어 조정에 바친 지도. 이 지도는 최초의 실측지도로 규형, 인지의와 같은 과학기구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양계 지역과 압록강 이북 까지도 상세히 기록하여 당시 북방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다.

16. 임진왜란이 미친 영향으로 사실과 가장 다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 ① 군무를 처리하던 비변사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강화되어 정무와 군무를 처리하는 국가 최고 정책 결정기구가 되었다.
- ② 임진왜란 동안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더불어 기근과 질병으로 인구가 크게 줄었고, 이괄의 난 등 민란이 도처에서 발생하여 사회혼란이 극심하였다.
- ③ 오랜 전쟁으로 토지대장과 호적이 소실되어 국가재정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정부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명첩을 대량 발급해 신분제가 동요되었다.
- ④ 전쟁 중 발생한 약탈과 방화로 불국사, 서적, 실록, 궁궐 등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고, 수많은 국민이 포로가 되는 등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졌다.

정답: ②

* 임진왜란의 영향

임진왜란(1592~1598)은 국내외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내적으로는 왜군에 의해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근과 질병으로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토지 대장과 호적의 대부분이 없어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고, 식량도 부족해졌다. 또, 왜군의 약탈과 방화로 불국사, 서적, 실록 등 수많은 문화재가 손실되었고, 수만 명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

정치적으로 비변사가 강화되어 구성원이 3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원으로 확대되었고, 그 기능도 군사 문제뿐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 등 거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였다. 이와 같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자,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는 유명무실해졌다.

경제·사회적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여 서얼·중인·양인 계층들의 신분 상승이 가능하여 신분제 변동이 심하여졌다.

② 이괄의 난(1624)은 임진왜란 중 일어난 민란이 아니고, 인조반정의 논공행상에서 불만을 가진 고위 관리의 반란이다.

17. 다음 조선시대 후기 신분제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함으로써 서얼은 이를 이용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 ㉡ 철종 때 기술직 중인들이 대대적인 소청운동을 벌여 청요직의 허통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거부로 실패하였다.
 - ㉢ 정부는 전쟁 이후 늘어난 관청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노비의 신공을 점차 강화하려는 정책을 폈다.
 - ㉣ 속대전에는 사노비의 경우 100냥의 속전을 지불하면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다.
 - ㉤ 노비가 혼인하여 출산할 경우 자녀들은 어머니의 소유주가 소유권을 가졌다.
 - ㉥ 납공노비는 관청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고 소작료 외에 무명과 저화를 신공으로 바쳤다.
-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 조선 후기의 신분제

- 서얼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전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자, 서얼은 이를 이용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 영·정조 때에 서얼을 어느 정도 등용하자 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여 수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상소를 올려 동반(문반)이나 홍문관 같은 청요직으로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서얼통청운동). 그리하여 1851(철종 2년) 신해허통 조치로 사관(四館) 등용에 조치가 취하여져 서얼 문과 합격생의 승문원 분관이 허용되어 완전한 청요직 허통이 이루어졌다(반면에 기술직 중인들의 통청 운동은 실패)

- 조선 후기에는 공노비의 신공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이는 노비들이 부담이 과중하여 도망하는 현상이 만연하여 이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를 막아보기 위함이었다.

- 속대전에는 공장대급노의 속량가는 100냥 이상 받지 못하고 사노비의 속량가도 이와 같고 규정되어 있다. 포 50필에 해당하며 25년치의 신공량이다.

- 노비의 신분귀속은 일반적으로 천자수모법에 따라 결정되어 소유주가 서로 다른 노와 비가 혼인했을 경우 그 소생이 어머니의 소유주의 소유로 되었다.

- 공노비는 독립된 가옥에서 살면서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매년 국가에 신공을 바치거나(납공노비), 일정한 기간을 관청에 나가서 무보수로 노동을 제공하여야 했다(선상노비). 납공노비는 관청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며 소작료와 무명과 저화를 신공으로 바쳐야 했다.

18. 다음은 조선시대 봉당에 대한 설명이다. ㉠~㉣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후,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그 후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나중에는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 ① ㉠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문제에서 주로 소극적인 부류가 서인, 적극적인 부류가 동인으로 형성되었다.
- ② ㉡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나뉘어져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북인이 집권하였다.
- ③ ㉢ 예송 논쟁에서 나타난 예론의 차이는 신권을 강화하려는 서인과 왕권을 강화하려는 남인 사이의 정치적 입장과 연결되었다.
- ④ ㉣ 노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북방개혁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 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답: ④

* 조선시대 봉당에 대하여 [2014년 순경 1차 한국사 12번과 유사]

- 1567년 선조 즉위 직후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며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 명종 때 이후 정권에 참여해 온 기성 사림(서인)은 척신 정치의 과감한 개혁에 소극적인 반면, 명종 때의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새롭게 정계에 등장한 신진 사림(동인)은 원칙에 더욱 철저하여 사림 정치의 실현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 사람이 이조 전랑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후(1575), 처음에는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1589) 등을 계기로 온건파인 남인(이항의 학통)과 급진파인 북인(조식의 학통)으로 나뉘었다(1591).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북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서인과 남인 사이에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였다. 이 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문제를 놓고 신권을 강화하려는 서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남인은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숙종 때의 환국 과정에서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서 서인은 노론(강경론)과 소론(온건론)이 분화되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효종 때에는 북벌 주도) 민생안정을 강조(숙종 초 남인의 북벌 주창에는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소론은 윤증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실리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북방 개혁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19. 다음은 고려, 조선시대 농업의 발달 과정이다. 이 중 시기와 내용이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시기	내용
고려	㉠ 2년 3작의 윤작법 시작
	㉡ 모내기법(이앙법) 시작
	㉢ 목화씨 전래, 이암이 원으로부터 『농상집요』 소개
조선 전기	㉣ 약초와 과수 재배 등이 확대
	㉤ 『농사직설』, 『금양잡록』 간행
조선 후기	㉥ 상품 작물과 구황 작물의 재배
	㉦ 모내기법 보급으로 이모작 시행 ㉧ 『농가집성』, 『사시찬요』간행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고려·조선 시대의 농업 발달

고려: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고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점차 줄어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늘었다. 밭농사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고, 논농사도 고려 말에는 직파법 대신에 이앙법(모내기)이 남부 지방 일부에 보급될 정도로 발전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이암이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를 소개하였고, 고려 말에는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와 목화 재배가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사직설, 금양잡록, 사시찬요 등의 농서를 간행·보급하였고,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으며, 밭이랑 위에 파종하는 농종법을 사용하였다. 논농사는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가 보급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시비법도 발달하여 밀거름과 덧거름을 주게 되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휴한농법 극복) 계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었다(상경 가능). 목화 재배도 확대되어 의생활이 개선되었으며, 약초와 과수 재배 등이 확대되었다.

조선 후기: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앙법)이 확대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고, 밭농사에서는 밭의 이랑에 파종하는 농종법 대신, 밭의 고랑에 파종하는 견종법이 유행하였다. 신장에 팔기 위한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의 상품작물과,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고구마·감자 등의 구황작물 재배도 성행하였고, 신숙의 ‘농가집성’, 박세당의 ‘색경’,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호수의 ‘해동농서’ 등이 저술되어 농업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 모내기법 보급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틀린 진술이다.

20. 다음 중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조 때 일어난 서울의 쌀 폭동은 경강상인이 도성 안의 미전상인을 움직일 정도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 ② 송상은 인삼을 주로 취급하였으며 대외무역에도 종사하였다.
- ③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란 특허상인이 등장하였고, 공인의 활동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 ④ 관영수공업이 발달하여 경공장과 외공장이 증가하고 납포장이 감소하였다.

정답: ④

* 조선 후기 경제상

- 조선 후기에는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등장하여 소비자층과 소생산자의 반발을 사기도 하여, 순조 33년(1833) 경강상인들이 값을 올리기 위해 쌀을 매점매석함으로써 서울 싸전들이 문을 닫을 정도였고, 이 때문에 쌀을 구하지 못한 도시 빈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상(私商)인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특허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농민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배,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는 관영 수공업이 쇠퇴하면서 발달하고 있었던 민영 수공업이 증가하는 수요를 거의 충족시켰다. 민간 수공업자들은 장인세만 부담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제품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관영 수공업장에서 만든 제품과 비교할 때 경쟁력도 높았다.

21. 다음은 남북한 정부 당사자 간 공식 합의된 문서 내용이다. 이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① 자주적 통일과 평화적 통일, 민족적 대단결 도모를 원칙으로 하였다.
- ② 남북 화해와 상호 불가침의 기본 지침을 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방안을 담았다.
- ③ 남북한은 서로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호혜 평등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 ④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신뢰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정답: ②

* 남북기본합의서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노태우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간의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며 남북 화해와 상호 불가침의 기본 지침을 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방안을 담은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1991.12).

- ① 남북한은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에서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에 합의하였다.
- ③ 1973년 박정희 정부는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을 발표하여 호혜 평등 원칙 아래 비적성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고 북한에 상호 내정 불간섭과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하였다.
- ④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신뢰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22.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포함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김옥균을 포함한 급진개화파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킨 후, 14개조 정강을 마련하여 국가체제의 개혁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 정변은 3일 만에 청군의 개입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 ①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한다.
- ② 모든 재정은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 ③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한다.
- ④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한다.

정답: ③

*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14조

김옥균, 박영효 등의 급진개화파는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갑신정변(1884.12)을 일으키고 청과의 의례적 사대 폐지, 문벌폐지와 인민평등권 제정, 지조법 실시와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정강 14조가 발표되었다.

- ①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들은 무명의 잡세 폐지, 토지의 균등 분작 등을 담은 폐정개혁 12조를 발표하였다.
- ② 1차 갑오개혁(1894. 7~12)에서 탁지아문이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 ④ 독립협회는 관민공동회(1898.10)에서 헌의 6조를 건의하며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건의하였다.

23. 다음 자료는「조선혁명선언」의 일부다. 이를 작성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 생존의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 이상의 사실에 의거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보기>-----

- ㉠ 민족주의 정신에 근거하여 한국사의 체계를 모색한 「독사신론」을 저술하였다.
- ㉡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였다.
- ㉢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를 저술하여 한국 고대 문화의 우수성을 밝혔다.
- ㉣ 우리의 민족정신을 ‘혼’으로 파악하고 민족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①

* 신채호의 역사관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1880~1936)는 <독사신론>(1908)에서 왕조 사관과 사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조선사연구초>(1929,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의 일천년대 제일대 사건으로 파악)와 <조선상고사>(1931,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파악) 등의 저술을 통해 고대사에 살아 숨 쉬는 자주적·주체적인 민족 고유의 사상인 ‘낭가 사상’의 존재에 주목하고, 이러한 정신을 되살려 민족독립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족주의 역사학자로 유명하지만 1920년대 이후에는 무정부주의에 경도되어 일제와의 치열한 폭력투쟁을 주장하는 행동가였다.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의 부탁으로 1923년 1월에 발표한 조선혁명선언(일명 의열단 선언)에서는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문화주의·외교론·준비론 등의 입장을 비판하고 민중에 의한 직접혁명과 평등주의에 입각한 독립노선을 제시하였다.

㉡ 1930년대에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등을 저술한 백남운(1895~1974)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 박은식(1859~1925)은 <한국 통사>(1915)와 <한국 독립운동지혈사>(1920)를 저술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또한 우리의 민족 정신을 ‘국혼’과 ‘국백’으로 파악하였으며 특히 ‘국혼’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독립 정신을 정리하였다.

24. 우리나라 20세기 초 종교계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용운은 일본 불교계의 침투에 대항하면서 민족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 ② 손병희는 일진회가 동학조직을 흡수하려하자 천도교를 창설하고 정통성을 지키려 했다.
- ③ 박은식은 「유교구신론」을 지어 유교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④ 김택영은 전국의 유림들과 더불어 대동학회를 결성한 후 유교를 통한 애국 계몽 운동을 펼쳐나갔다.

정답: ④ [2011년도 국가직 9급 한국사 13번과 유사]

* 20세기 초 종교계의 민족운동

동학은 3대 교주인 손병희가 1905년 친일 세력(진보회->일진회)을 내쫓고 천도교로 개편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대종교(1909)가 창시되어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유교에서는 박은식이 <유교구신론>을 저술하여 유교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종교로 거듭날 것을 주장하였고, 불교에서는 한용운이 일본 불교계의 침탈에 맞서 '조선불교유신론'을 내세우며 불교의 혁신과 자주성 회복을 주장하였다.

④ 대동학회는 이완용 등이 1907년 12월에 신·구 학문 연구를 표방하고 설립된 친일 유교학회이다. 김택영(1850~1927)은 구한말의 대학자로서 한문학사의 종막을 장식하는 대가이다. 시에서의 황현(黃玹)과 문(文)에서의 이건창과 병칭된다. 을사조약, 한일합방 이후 창작활동과 병행해서 한문학에 대한 정리·평가와 역사 서술에 힘을 기울였다.

25. 다음 사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어느 날 외양선이 평양 대동강까지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상선을 약탈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분노한 평양 관민은 평안도 관찰사인 박규수의 지휘 아래 외양선을 불태워 침몰시켰다.

- ① 운요호가 강화도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했다.
- ② 프랑스 극동함대가 강화읍을 점령하였다.
- ③ 통상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 하였다.
- ④ 군함이 강화도를 재침하여 어재연 부대가 결사항전 하였다.

정답: ④

* 신미양요

흥선 대원군의 집권기(1863~1873)에 병인양요(1866.9)에 앞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가까이 다가와 통상을 요구하자, 관리들은 외국과의 통상을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배에서 내려 민가를 약탈하고 관리를 잡아 가두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분노한 평양의 관민은 제너럴셔먼호를 불살라버렸다(1866.8 제너럴셔먼호 사건).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이를 신미양요라 한다(1871). 프랑스군을 격퇴한 후, 또 다른 침입에 대비하여 강화도의 경비를 튼튼히 하고 있던 조선 정부는 이에 맞섰으며, 어재연이 이끈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한때 광성보를 점령하였던 미군은 어재연 장군(전사)이 이끄는 조선 군민의 강력한 저항에 버티지 못하고 물러갔다.

- ① 일본은 흥선 대원군 하야(1873) 직후 한반도 침략을 노리며 강화도 앞바다를 불법적으로 침투하는 일종의 포함외교인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다(1875.9).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1876.1).
- ② 흥선 대원군의 병인년 천주교 박해(프랑스 선교사 9명 포함)를 문제 삼아 통상을 요구하며 프랑스 극동함대가 강화도로 침략해 온 것을 병인양요라 한다(1866.9).
- ③ 조선 정부에 통상요구를 거부당한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흥선 대원군의 부친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여 통상요구 협박을 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쳤다(1868.5).

26. 한국과 일본 간 맺은 어업협정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사실과 다른 것은?

- ① 한·일 어업협정은 1965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는데 이를 구(舊) 어업협정, 후자를 신(新) 어업협정이라고 한다.
- ② 구(舊) 어업협정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협정으로 자국연안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어업전관수역으로 설정했다.
- ③ 신(新) 어업협정의 주요내용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불법조업 단속, 어업 공동 위원 설치 등이다.
- ④ 신(新) 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효력은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설정되었다.

정답: ①

* 한일 어업 협정에 대하여

한일 간에 어업 협정은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1965년 6월(박정희 정부)과 1998년 11월(김대중 정부), 2차례 있었다. 구별하기 위해 각각 신·구 어업협정이라 부른다.

구(舊) 어업협정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협정으로 자국연안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어업전관수역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배타적경제수역)를 선포하고 구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 필요해져 1998년 신(新)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신(新) 어업협정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부분을 동해 중간수역으로 설정, 불법조업 단속, 어업 공동 위원 설치 등을 담았다.

신(新) 어업협정은 졸속으로 행해져 독도가 중간 수역에 포함되는 등 우리에게 막대한 영토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파기의 여론이 비등하였으나 유효 기간이 3년으로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아 효력이 자동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27. 다음에 제시된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시간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
- ㉠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하였다.
 - ㉡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7년으로 하였다.
 - ㉢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 ㉣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였다.
-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 대통령 선출에 대한 헌법 개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제정(1948년, 임기 4년의 정·부통령 국회 간선 선출) 이후 정치적 격변과 맞물려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장기독재를 위하여 1952년 발췌개헌(1차 개헌, 임기 4년의 정·부통령 직선으로 선출)과,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제한 폐지)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60년 4.19 혁명 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1960: 3차 개헌).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군정 때인 1962년, 다시 대통령 직선제 헌법으로 되돌아갔으나, 박정희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1972년에 유신 헌법(7차 개헌, 임기 6년의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와 막강한 권한 부여)으로 개정하여 장기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유신체제가 붕괴하며 대통령 직선제의 민주화가 오는 듯 했으나,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이후 7년 단임의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고(1980: 8차 개헌, 5공 헌법),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정권의 철권통치에도 불구하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 (1987: 9차 개헌, 현행 헌법).

28. 다음은 조선 후기 실학자와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 정약용 - 농업중심 개혁론의 선구자로 균전론을 제시
 - ㉡ 홍대용 - 무역선 파견, 청에서 행해지는 국제 무역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
 - ㉢ 유수원 - 상공업 진흥을 위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 주장
 - ㉣ 유형원 -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의 개혁 뿐 아니라 문벌제, 과거제, 노비제의 모순도 지적
-

- ① ㉠, ㉡ ② ㉢, ㉣ ③ ㉠, ㉡, ㉢ ④ ㉢, ㉣, ㉤

정답: ①

* 조선 후기 여러 실학자들의 주장 [2014년도 서울시 9급 12번과 유사]

- 유형원(1622~1673): 농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로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 유형원은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조세와 병역도 조정하는 균전론을 내세워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고, 양반 문벌 제도, 과거 제도, 노비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였다.

- 정약용(1762~1836): 이익의 실학 사상을 계승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그는 토지 제도의 개혁론으로 '전론'에서 지주 전호제를 철폐하여 무상몰수의 방법으로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한 후 각 여(閭)단위로 여장이 지휘 하에 농지의 공동 소유, 공동 경작과 수확량을 노동력에 따라 분배하자는 여전론을 처음에 내세웠다가, '경세유표'에서 가족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농업 종사자에게 井자로 구분한 토지의 8구(사전)를 분배하고 1구(공전)의 수확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전제를 주장하였다.

- 유수원(1694~1755): 상공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로 '우서'를 저술하여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 홍대용(1731~1783): 북학파의 선구자로 '임하경륜'에서 전국을 9개 도(京都+八道)로 나누어 아내가 있는 농민들에게 2결씩 토지를 균등히 소유케 하는 균전제와 토지 소유자들이 모두 국방을 담당하는 부병제를 주장하였다.

- 박제가(1750~1805):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는 상공업의 발달, 무역선을 파견하여 청에서 행해지는 국제무역에도 참여하는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 또,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9. 다음 자료에 제시된 장소인 이곳에서 한인들이 전개한 활동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국권 피탈 이후 많은 한국인이 이곳(으)로 이주했다. 일제가 만주 침략에 이어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일본군이 한국인을 첩자로 활용, 이곳의 침략을 도모한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고, 이로써 이곳의 한인들은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다.

-----<보기>-----

- | | |
|--------------|--------------|
| ㉠ 성명회 조직 | ㉡ 대한국민의회 조직 |
| ㉢ 대조선국민군단 창설 | ㉣ 대한광복군정부 결성 |

- ① ㉠, ㉢ ② ㉡, ㉣ ③ ㉠, ㉡, ㉣ ④ ㉡, ㉢, ㉣

정답: ③

* 연해주 지역의 한인 활동

1860년 이후 많은 동포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노령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910년 6월과 8월 유인석, 이범윤 등이 중심이 되어 13도 의군과 성명회(聲鳴會)가 설립되었고, 1911년에는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과 이를 기반으로 자치조직인 권업회(勸業會)가 설립되어 독립운동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권업신문을 발행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군정기관으로 이상설, 이동휘 등은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여 군사활동을 준비하였으며, 러시아혁명(1917) 직후 전로한족회 중앙 총회가 결성되었는데, 이 단체는 3·1 운동 직후 임시정부 형태의 대한국민의회(1919.3)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중일 전쟁 직후인 1937년, 일본군의 연해주 침략 빌미를 제공치 않기 위한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수 많은 교민들이 강제이주 당하였다.

㉣ 1914년 박용만은 미주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30. 다음 법령이 적용된 시기에 한국의 상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혹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한다. - 『조선법령집람』 -

-
- ① 즉결 처분권을 가진 헌병 경찰이 한국인에게 태형을 집행하였다.
 - ② ‘내 살림 내 것으로’ 등의 구호를 내건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③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였다.
 - ④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간주한 일제가 회원들을 검거하여 투옥했다.

정답: ①

* 회사령이 시행되던 1910년대 일제의 통치

일제는 한일병합(1910.8) 후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전국 곳곳에 배치된 헌병과 경찰은 한국인의 모든 일상생활에 관여했으며, 재판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태형 등의 형벌을 가할 수도 있었다. 특히 조선 태형령(1912~1920)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형벌이었고, 관리·교사들까지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녀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무단통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제적으로는 경제 구조를 일제의 상품과 자본을 수출하고, 한국의 식량과 원료를 수탈할 수 있도록 토지 조사령(1912), 임야조사(1918), 회사령(1910), 삼림령(1911), 어업령(1911), 광업령(1915)을 공포하였고, 1910년에 제정한 회사령(~1920)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② 토산품을 애용하여 민족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물산장려운동이 1920년 8월부터 조만식 등에 의해 평양에서 시작되어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③ 일제는 중일전쟁(1937.7)의 배경 속에서 1938년 4월,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④ 조선어학회 사건(1942.10): 함흥영생여고의 한 학생의 한국말 대화를 취조하던 일제는 한글 연구단체인 조선어 학회를 배후의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장지영, 최현배, 이희승, 이극로 등을 체포하고,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 때 이윤재와 한징은 옥사(獄死)하였다.

31. 다음 동학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도정치 아래에서 고통 받던 다수 농민들은 그들이 처한 삶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있었으며 이때 동학이 발생했다.
- ② 동학은 지배체제의 모순이 심화되고 서양 세력의 접근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농민들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주고자 했다. 교주는 최시형으로 충청도 보은을 근거지로 창시되었다.
- ③ 동학은 사회에 대한 지도능력을 상실한 성리학과 불교를 동시에 배척하고 서양세력과 연결된 서학도 배격했다.
- ④ 교리는 정통적인 민족신앙을 바탕으로 유교, 불교, 도교는 물론 천주교의 교리까지 흡수한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정답: ②

* 동학에 대하여

동학은 1860년에 경주 출신인 최제우가 창시하였다. 동학에는 세도정치기 조선 사회가 처한 절망적인 사회 상황이 반영되었다. 교리는 유·불·도교의 주요 내용이 바탕이 되었고, 주문과 부적 등 민간 신앙의 요소들이 결합되었으며, 심지어 천주교의 교리까지 일부 흡수하였다.

동학은 사회에 대한 지도능력을 상실한 성리학과 불교를 동시에 배척하였다. 또한, 서학, 즉 천주교로 대표되는 서양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이라는 등 반외세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동학이라는 이름도 서학인 천주교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었다.

동학은 우리의 전통적인 경천(敬天)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섬길 수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시천주(侍天主)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고, 노비 제도를 없애며,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였으며, 후천개벽(현세의 부귀와 빈천이 바뀐다)을 부르짖어 조선 왕조의 운세가 다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조선의 지배층은 신분질서를 부정하는 동학을 위협하게 생각하여 금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는 죄로 최제우를 처형하였다(1864).

그러나 2대 교주 최시형은 교세를 확대하면서 교리책인 동경대전(‘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으로 구성)과 포교 가사책인 용담유사(‘용담가’, ‘안심가’ 등으로 구성)를 펴내어 교리를 정리하는 한편, 의식과 제도를 정착시켜 포·접의 교단 조직을 정비하였다. 다시 교세가 커진 동학은 삼남(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지방은 물론,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로 퍼져 후일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32. 다음 중 개화기 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발간, 「시일야 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
- ② 순 한글로 간행된 제국신문은 창간 이듬해 이인직이 인수, 친일지로 개편되었다.
- ③ 독립신문은 순한글판과 영문판을 발행하였으며 근대적 지식보급과 국권·민권 사상을 고취하였다.
- ④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는 관보의 성격을 띠고 10일에 한번 한문으로 발행되었다.

정답: ②

* 개화기의 언론 [2013년도 서울시 9급 15번과 유사]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1883년 박문국에서 간행한 한성 순보였다. 한성순보는 한문을 사용하여 10일 마다 발행되었으며(旬報) 정부 관보의 성격을 띠었다. 국내 소식과 함께 서양의 신문화를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갑신정변(1884.12)의 실패로 폐간되었다.

1896년에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1896~1899)은 대중을 계몽하여 근대화를 촉진하려는 한글판과, 외국인에게 우리의 처지를 홍보하는 영문판으로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독립협회의 기관지적 성격을 띠면서 자주독립 정신과 근대적 민권의식을 고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황성신문(1898~1910)은 국·한문 혼용체로 된 일간 신문으로 유림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1904년에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그에 반대한 보안회를 지원하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1905년에 을사늑약에 대해 분노를 토하였던 장지연의 항일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하다.

이종일이 순 한글로 간행한 “제국신문” (1898~1910)은 서민층과 부녀자들 간에 독자가 많았다. 이 신문은 폐간될 때까지 일제의 탄압으로 여러 차례 정간을 당하면서도 민중 계몽과 자주독립 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썼다.

1904년 발간된 대한매일신보는 대표적인 항일언론으로 순한글, 국한문, 영문판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계층의 최다 독자를 자랑하며, 발행인이 영국인 베델이며, 양기탁, 박은식 등의 집필진으로 유명하다. 을사조약 이후 항일 운동의 선봉으로 의병 운동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많이 게재하였으며 황성 신문, 제국 신문 등과 함께 국채 보상 운동(1907)을 주도하였다.

② 여성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서 민중을 계몽했고, 일진회 등의 반민족 행위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천도교계에서 발행한 만세보(1906~1907)는 경영난에 빠지자, 이완용의 사주를 받은 이인직이 1907년 인수하여, 대한신문으로 바꾸고 친일내각의 기관지로 탈바꿈되었다.

33. 다음은 임진왜란 중 발생한 어떤 전투의 내용이다. 이 전투는 무엇인가?

선조 30년 7월 조선수군은 적 본진을 급습하기 위해 삼도수군 160여척을 이끌고 한산도를 출발하였다. 부산 근해에 이르자, 이 사실을 사전 탐지한 적들의 교란작전에 말려들어 고전을 하다 되돌아오던 중 가덕도에서 복병한 적의 기습을 받아 군사 400여명을 잃고 지금의 거제군 하청면으로 이동하였다. 일본군은 조선수군에 대한 기습계획을 세워 야간에 일제히 수륙양면기습작전을 개시했다. 이 공격으로 많은 조선수군이 전사하고 오직 경상좌수사만이 12척의 전선을 이끌고 남해방면으로 후퇴하였다. 조정에서는 보고를 접하고 크게 놀라 백의종군하던 장수를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한다.

① 옥포해전 ② 당항포해전 ③ 칠천량해전 ④ 안골포해전

정답: ③

* 칠천량 해전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의 연합 수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포(1592.5)에서 일본 수군과 첫 해전을 벌여 30여 척을 격파하였다(옥포대첩). 이어 사천에서는 거북선을 처음 사용하여 적선 13척을 격파하였다(사천포해전). 또 당포해전과 1차 당항포해전에서 각각 적선 20척과 26척을 격파하는 등 전공을 세웠다. 같은 해 7월 한산도대첩에서는 적선 70척을 대파(학익진 사용)하여 남해 제해권을 완전 장악하고 호남 곡창 지대를 보호하며 왜군의 수륙병진작전을 좌절시켰다. 또 안골포에서 가토 요시아키 등이 이끄는 일본 수군을 격파하고(안골포해전), 9월 일본 수군의 근거지인 부산으로 진격하여 적선 100여 척을 무찔렀다(부산포해전). 1593년 장문포해전에서 육군과 합동작전으로 일본군을 격파함으로써 적의 후방을 교란하여 서해안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을 앞두고 이순신이 모함에 걸려 투옥되자 조선 수군의 세력과 사기는 현저히 약화되었다. 조정은 경남 남해안에서 왜군에 대한 해상로 차단작전을 도체찰사(이원익)와 도원수(권율)에게 독촉하였고, 새로운 수군 통제사 원균은 이를 수행하다 연전연패 속에서 자신감을 잃고 도원수 권율에 의해 곤장까지 맞게 되었다. 원균은 권율의 처사에 격분하여 회하전 함선을 이끌고 부산의 왜본영을 급습하려 가다 오히려 거제도, 가덕도 등에서 왜군이 습격을 받았고, 칠천량에서 본인과 전라 수사 이억기, 충청 수사 최호 등이 죽고, 경상우수사 배설만이 12척의 배를 이끌고 패퇴하며 조선 수군은 궤멸하였다(1597년 7월).

그러나 다시 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은 12척의 함선과 빈약한 병력을 거느리고 명량에서 133척의 적군과 대결, 31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다(1597.9, 명량대첩). 이 승리로 조선은 다시 해상권을 회복하였다. 1598년(선조 31) 2월 고금도(古今島)로 진영을 옮긴 뒤, 11월에 명나라 제독 진린과 연합하여 철수하기 위해 노랑에 집결한 일본군과 혼전을 벌이며 적선 450여척을 격파하였으나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노랑해전).

34.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서 제기된 주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양반과 부호의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하리라.

-----<보기>-----

- ㉠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할 것.
- ㉡ 탐관오리의 죄목을 조사하여 엄징할 것.
- ㉢ 관리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 ㉣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

- ① ㉠ ② ㉠, ㉡ ③ ㉠, ㉡, ㉢ ④ ㉠, ㉡, ㉢, ㉣

정답: ②

*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 12조

제시된 자료는 고부봉기(1894년 2월) 후 다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의 백산봉기(1894년 4월)의 창의소이다. 이후 폐정개혁 12조를 통해 반봉건 반외세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폐정 개혁 12조의 주요사항>

1. 동학도와 정부는 원한을 씻고 모든 행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을 징벌한다.
5.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6.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7.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모두 폐지한다.
9.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왜와 내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1.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경작한다.

㉠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할 것(갑신정변 개혁정강 14조 중).

㉣ 개항기 근대개혁 요구안 중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다.

35. 다음 중 고려 태조의「훈요 10조」에 포함되는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
- ㉠ 대업은 제불호위(諸佛護衛)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원을 보호 감독할 것
 - ㉡ 왕위 계승은 적자·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마땅치 않을 때는 형제 상속도 가함
 - ㉢ 간언(諫言)을 받아들이고 참언(讒言)을 물리치며, 부역을 고르게 하여 민심을 얻을 것
 - ㉣ 차현 이남과 공주강 바깥은 산지의 형세가 모두 거슬리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으니, 그 지역 사람을 조정에 등용하지 말 것
 - ㉤ 관리의 녹은 그 직무에 따라 제정하되, 함부로 증감하지 말 것
 - ㉥ 사원은 도선의 설에 따라 함부로 짓지 말 것
-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④

* 훈요 10조 [2019년도 해경간부 한국사 40번과 유사]

고려 태조 왕건은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재위 19년(936)에 후삼국을 통일하였고 25~26년(942~943)에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겼다.

1. 대업은 제불호위(諸佛護衛)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원을 보호 감독할 것
2. 사원을 지을 때는 도선의 풍수지리에 맞게 사찰을 짓고 함부로 사찰을 짓지 말 것
3. 왕위 계승은 적자 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불초하거든 그 형제 중에서 추대할 것
4. 당의 풍속과 반드시 같게 하려 하지 말며, 거란과 같은 야만족을 본받지 말 것
5.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우니 중시할 것
6.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천영(天靈), 오악(五嶽), 명산(名山), 대천(大川),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니 마땅히 행할 것
7. 간언(諫言)을 받아들이고 참언(讒言)을 물리치며, 부역을 고르게 하여 민심을 얻을 것
8. 차현과 금강 이남은 산천과 인심이 배역을 끼고 있으므로 그 인물을 등용하지 말 것
9. 관리의 녹봉은 그 직무에 따라 제정하되, 함부로 증감하지 말 것.
10. 백성은 부리되 때를 가려서 하고,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적게 하여 농사의 어려움을 알면 저절로 민심을 얻어 나라는 부하고, 백성은 편안해 질 것이다. 그리고 경사(經史)를 널리 보고 고인의 말을 거울 삼을 것

36. 밑줄 친 ㉠, ㉡ 사이에 발생한 사실로 옳은 것은?

㉠ 지난해 8월 20일의 일을 차마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불충한 무리들이 만고에 없던 큰 변괴를 만들어 낸 것이니, 온 나라의 백성치고 눈물을 삼키며 국모(國母)의 원수를 갚고자 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중략)… ㉡ 폐하께서 외국 공사관으로 나가신 것은 한때의 임기응변이며 만부득이한 지경으로 빚어진 것이었으나, 절대로 정상적이며 온당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① ‘건양’이라는 연호를 정하였다.
- ② 교정청을 통한 개혁이 추진되었다.
- ③ 청의 군대가 아산만으로 진주하여 들어왔다.
- ④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김홍집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정답: ①

*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사이의 역사적 사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조약(1895.4.17)을 체결하여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러시아·독일·프랑스의 삼국 간섭(1895.4.23)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하며 일본의 세력은 위축되었다.

이 틈을 타서 민비가 러시아와 연결하여 일본을 견제하려 하자, 일본은 일본 군대와 해산 직전의 훈련대의 내응에 힘입어 경복궁 건청궁에 난입하여 을미사변을 일으켰다(민비 시해 사건, 1895.10). 이 사건 후 개화파 정부는 개혁을 다시 추진하였다(을미개혁, 1895.10~1896.2). 을미개혁을 통해 ‘건양’ 연호 사용, 단발령 실시, 태양력 사용 등이 있었지만,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반일 정서가 확산되어 유생 위정척사 세력들을 중심으로 항일의병이 일어났다(을미의병).

또한, 고종은 왕권을 제약하려는 개화 세력의 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을미사변 후에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자, 고종은 러시아 수병의 지원에 힘입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고(아관 파천, 1896.2), 김홍집, 어윤중의 개화파 정부는 무너졌다(피살됨). 이후 고종은 단발령 철회, 의병 해산 권고조치 등을 단행하였다.

②, ③, ④ 1894년 6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지 못한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군은 아산만으로 상륙하고,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 역시 인천에 상륙하였다. 이에 농민군은 외국 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화친하고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다(6.11). 그리고 개혁 추진을 위해 호남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고(6.11) 폐정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정부 역시 교정청을 설치하여(7.13) 농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 개혁을 실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7.23)한 후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청·일 전쟁(7.25)을 일으킨 후,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여 김홍집 내각을 통해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7.27)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였다(1차 갑오개혁).

37. 다음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업적들이다. 해당 업적을 연대순으로 나열했을 때 3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
- ㉠ 향약구급방 간행 : 가장 오래된 의서
 - ㉡ 수선사 결사 운동 : 보조국사 지눌의 불교 정화 운동
 - ㉢ 상정고금예문 인쇄 :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다고 기록
 - ㉣ 국학에 7재 설치 : 관학 진흥을 위한 7개의 전문 강좌
 - ㉤ 삼국사기 편찬 : 김부식이 기전체로 서술
 - ㉥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제작 : 토속적인 면이 가미된 독특한 석불

-
- ① 삼국사기 편찬
 - ② 향약구급방 간행
 - ③ 상정고금예문 인쇄
 - ④ 국학에 7재 설치

정답: ①

* 고려 시대의 문화 관련 연대기

㉥ 968년(광종 19)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남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국보 323호, 일명 은진 미륵)은 고려 시대 최대의 석불입상으로, 유난히 머리가 커 인체 비례가 불균형하지만 독특한 토속적 매력을 보여준다.

㉣ 고려 예종 대에 관학(국자감) 진흥을 위하여 무학재를 포함한 전문 강좌인 7재를 설치하였다(1109).

㉤ 고려 인종 대에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사기(1145)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씌여진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세가가 없이 본기·열전·지·표로 구성)로 서술하였다.

㉡ 고려 무신 정권기에 지눌은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1190년 공산 거조사 정혜결사->1205년 순천 길상사(송광사) 수선사결사).

㉢ 몽골과 항쟁 중이던 강화도 피난 시기에 고려 인종 때 최윤의 등이 지은 예서(禮書) '상정고금예문'을 금속활자로 인쇄하였다(1234). 이는 서양에서 금속 활자 인쇄가 시작된 것보다 200여 년이나 앞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다.

㉠ 고려 고종 대에 편찬된 향약구급방(1236)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 서적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과 국산 약재 180여 종이 소개되어 있다.

38. 다음 고려시대의 해상 무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려와 송(宋) 사이의 해상 무역로는 고려 문종 이후 거란의 위협을 피해 태안반도, 군산도, 흑산도 부근을 거쳐 명저우로 향하는 남쪽 항로가 이용되었다.
- ② 고려가 송(宋)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비단, 약재, 책, 자기 등으로 주로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이었다.
- ③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대외 무역의 발달과 함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 ④ 고려 전기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사무역이 성행하여 공무역이 쇠퇴하게 되었다.

정답: ④

* 고려 시대의 해상 무역

고려 시대에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송, 요등 외국과 무역도 활발해졌다.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대외 무역의 발전과 함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의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송과의 무역이었다. 조공 공무역 형태이지만 구속력이 없는 조공 관계였기 때문에 증여품이 아닌 상품 형식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다. 고려는 송에서 비단·약재·책·자기 등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는 대신에, 종이·인삼 등 수공업품과 토산물을 수출하였다.

고려와 송과의 사무역은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고려가 국초부터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부를 중앙에 집중시키도록 통제하였고, 중앙의 왕실과 귀족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으로도 그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려와 송의 교역로는 육로보다 주로 해로가 이용되었다.

북로: 산둥 반도의 덩저우(등주) - 대동강 어귀의 속도(풍도) - 웅진 - 예성항(벽란도)

남로: 절강성의 명저우(항주, 명주) - 흑산도 - 죽도(군산) - 태안 - 예성항

그런데 문종 이후 양국 교통로가 남로로 바뀌게 된다. 이는 거란이 강성해짐에 따라 북로가 위협을 받게 된 것과 남중국 연안 각 항구에서의 국제무역이 활발해진 데 있다.

거란과 여진은 은을 가지고 와서 농기구, 식량 등과 바꾸어 갔다. 일본은 11세기 후반부터 내왕하면서 수은, 황 등을 가지고 와 식량, 인삼, 서적 등과 바꾸어 갔다.

한편, 서역과의 교류도 활발하여 대식국인이라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고려에 들어와서 수은, 향료, 산호 등을 팔았다. 이들을 통하여 고려의 이름이 서방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39. 다음은 청해진에 대한 설명이다. ㉠~㉣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장보고는 ㉠당에 건너가 무령군 소장으로 활동하다가 귀국 이후 신라 말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청해진은 ㉡신라 정부로부터는 일정한 독립적인 행정 및 경영체제를 유지했고, 재당 신라소 및 신라방의 경영은 당나라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었다. 청해진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적을 소탕하는 군사체계 및 ㉣정부(신라·당·일)로부터 독립된 해상무역활동을 영위하는 무역체계를 갖추었으며, 재당·일 신라인 집단거주지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 장보고와 청해진에 대하여

장보고(?~846)는 일찍이 당에 건너가 군인으로 출세하였다(무령군 소장). 당시 신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산둥성에 적산 지역에 거점을 두어 신라방(집단거주지)과 신라소(자치기관)를 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화원이라는 절을 짓고 이 곳을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아울러 신라인의 친목과 단결, 안녕을 꾀하는 정신적 위안처로 만들었다.

그러던 중 신라인이 당의 해적들에게 잡혀 와 노비로 팔리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귀국 후 흥덕왕을 뵈는 자리에서 "저에게 청해를 지키는 일을 맡기신다면, 해적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비로 끌고 가는 것을 막겠습니다"라고 요청하였고, 왕은 장보고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 군대를 조직하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828) 해적을 소탕하였다.

이로부터 장보고는 신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행정 및 경영체제를 유지하며, 황해와 조선 해협의 해상권을 쥐고 당과 일본에 무역선(교관선, 하가타 거점)과 무역 사절(회역사, 견당 매물사)을 보내어 대규모의 국제 무역을 하였으며, 신라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의 교통은 오로지 청해진의 선박에 의하여 행해졌다. 그리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고 당-신라-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무역을 주도하였다.

40. 다음은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선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역설적이게도 ㉡(는) 이 땅의 바다에게는 달가운 일이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바다에 관한 중요한 자산 둘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지 모른다. 김려와 정약전이 그들이다. 김려는 진해 쪽 바다를 기록한 ㉢를 남겼고 정약전은 흑산도 바다를 기록하여 ㉣에 남겼다. …… 유배는 ‘실학의 바다 발견’이라는 뜻밖의 경이를 역사에 돌을 새김한다.

㉣ ㉣은 바다 공간을 국가 기구의 전반적인 개혁을 논하는 정책 입안의 공간으로 확장한다. ㉣에서 그는 “(㉣)은(는) 우리의 그윽한 수산물이니 진실로 한번 경영만 잘하면 장차 이름도 없는 물건이 물이 솟고, 산이 일어나듯 할 것이다”라고 했다.

① ㉠의 사건으로 벽파는 오가작통법을 동원해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였다. 이 일로 청나라 신부 주문모가 사형 당하는 등 다수 신자가 순교하였다.

② ㉡과 ㉣은 유배생활 중 저자들이 직접 관찰하고 들은 바를 정리한 실학사상의 결과이며 ㉡은「우해어보」, ㉣은「자산어보」이다.

③ ㉢의 인물은 ㉣에서 군주 중심의 정치체제를 수립하고 언관의 역할을 제한하며 6조의 기능을 재조정 할 것을 제안하였다.

④ ㉣에 들어갈 용어는 ‘바다’로 나라 안의 모든 섬과 바다를 관리할 부서를 만들어 체계적인 해양경영으로 백성과 국가의 부를 살찌우자는 내용이었다.

정답: ④

* 조선 후기 수산(水産)에 관한 연구

순조 즉위 직후 벽파가 집권하며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일어났다(1801). 오가작통법을 동원하여 신자들을 체포하고 이승훈, 정약종, 주문모(중국인 신부) 등 300여 명의 신도가 처형당하고, 정약전, 정약용 등이 유배를 당하였다.

이들의 유배 당시 바다와 관련된 실용서들이 출간되었다. 김려(1766~1822)는 진해로 유배되어 우해어보(牛海異魚譜)를, 정약전(1758~1816)은 흑산도로 유배되어 자산어보(茲山魚譜)라는 어류도감을 저술하였다.

정약용(1762~1836)은 강진 유배 당시 경세유표(1817)를 저술하여 “섬은 우리의 그윽한 수산물이니 진실로 한번 경영만 잘하면 장차 이름도 없는 물건이 물이 솟고, 산이 일어나듯 할 것이다”라고 하며 유원사(綏遠司)라는 해양 총괄기관의 설치를 주창하였다.

③ 정약용은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하여 관제·토지제도·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안을 담은 ‘경세유표’에서, 군주권의 절대성과 우월성을 기반한 의정부의 기능 강화와 비변사 혁파, 언관 역할의 제한과 6조의 기능 재조정(승정원 및 왕실 관련 아문들의 이조 예속과 군영아문의 병조 귀속) 등을 제안하였다.